



해양수산부

우리 항만이 크게 변화합니다.

우리나라가 동북아 물류중심으로 도약하는 토대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.



우리는 의미있는 일을 또 하나 이루어 냈습니다.
노·사·정은 부산항과 평택당진항에 이어 인천항도 항만
근로자를 상용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.

지난 100년간 항운노조에서 항만근로자를 독점으로 공급
해 왔습니다만 부산, 평택당진, 인천항은 항운노조원을
항만물류 기업의 정규직원으로 전환하는
역사적인 타결을 이룬 것입니다.

이번 항만인력공급체제 개편은 항운노조원의 큰 결단이
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.

앞으로 항운노조원은 일용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어져
근로기준법이 적용됨으로써 사회적·경제적 지위가 크게
향상되며, 물류업계는 자율적인 인력운용으로 작업효율성
증대, 기계화 확대 등이 가능해짐으로써 항만생산성과
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.

국가적으로도 물류경쟁력을 한 차원 끌어 올려 외국 선사,
다국적 물류기업의 유치에 기여함으로써 우리나라가
동북아 물류중심으로 도약하는 토대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.



알리는 말씀



선박안전기술공단 소식은 고객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공단 모든 고객을 대상으로 매월 발간하는 홍보지
입니다. 공단소식 및 고객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각종 정보, 모두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좋은 글을 게재코자
하오니 다양한 분야의 원고를 기다립니다.

연락처 → TEL : 032-260-2226 / FAX : 032-260-2315 / E-mail : vicadpr@kst.or.kr